

# 일본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임박 한·일 관계 경색국면 가나

## '양국 접촉' 해석 여부 촉각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8월 발표) 작성경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 '담화 발표에 한국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가 포함될 경우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과 함께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고노담화가 일본의 자체 조사와 판단을 토대로 일본의 입장을 담은 발표문이라는 본질적 성격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의회의 움직임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보고서는 '고노담화 발표 전에 그 내용에 대해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명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고노담화 작성 때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17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군 위안부 동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다는 한국 정부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우익 세력 등은 한국이 고노담화의 세세한 표현에까지 관여해 사실상 의사를 관철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노담화를 발표하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해놓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비방을 일삼는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양국의 의사소통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이 어떠한지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경우로 접촉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단순 기술하는 수준이라면 담화 검증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익 세력은 이를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고노 담화 흡입 내기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정부가 사실상 담화의 내용을 좌우했다거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진실과 별개로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고노담화가 나왔다는 인식을 심는 판단이나 평가가 포함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베 내각이 표명한 고노담화 계승

**?** 고노 담화(河野談話)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담화.

방침을 껌데기로 만드는 행위이며 한일 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이런 경우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한 자료와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역사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양국 정부 의사 교환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에서 추진된 검증의 성격상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공식 접촉을 자제하고 보고서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20일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했으며 이사회를 거쳐 내용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감한 사안이라서 회기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20일을 공개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오른쪽 두번째)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한-일 중재역 맡겠다”

### 리퍼트 주한 美대사 지명자 공식 표명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리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만일 인준이된다면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국무부와 협의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중재역할을 거론하고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간 관계개선을 독려하면서도 양국의 과거사 갈등이 주권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중재역할을 맡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다.

리퍼트 지명자는 “우리는 한·일 양국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거사 이슈들을 해결

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했다”며 “지난달 말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대사로) 인준됐을 때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나 원산지 문제 같은 일부 불공평한 사안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문제가 여전히 정말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하는 등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이행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과 연계 여부에 대해 “한국이 TPP에 관심을 보이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을 TPP에 참여시키려면

(FTA를 비롯해)선결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발 안보 위협과 관련해 리퍼트 지명자는 3대 대북접근 기조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국제적 컨센서스 조성 ▲다자 또는 독자제재 지속 ▲강력한 국방력과 대북 억지력을 제시했다.

한편 2000년부터 5년간 리퍼트 지명자를 정책보좌관으로 뒀던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청문회 초반 리퍼트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시민형 군인’(citizen-soldier)의 표상”이라고 밝혔다. 리히 의원은 “리퍼트 지명자가 세출위원회에서 동아태 정책 업무를 수행할 때 평생 목표였던 해군 장교로 임대했다”며 “그는 군이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자원해서 임대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다니며 군 복무를 잘해냈다”고 평가했다.

상원 외교위는 한·미동맹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리퍼트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를 조기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외교위와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결정을 언제 실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 ‘고노담화’ 근간 훼손땀 美 반발도 클 듯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일본의 검증 결과 내용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이나 태도가 주요한 고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와 달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 미국 하원은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미국 상·하원은 올해 초 통합세출법을 통해 이 결의안의 준수를 다시 촉구하기도 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로 전쟁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소중할 일”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일본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명백히 부정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노담화의 근간이 명백하게 훼손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까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편, 국회는 18일 열린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논란과 돌과구를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 북핵 대응 등에 대한 질타와 대책 추궁도 이어졌다.

세정지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 “일본이 고노담화를 수정한다면 우리 외교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외교부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고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1센트 마젠타 우표’ 950만달러에 낙찰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우표로 꼽히는 ‘1센트 마젠타 우표’가 17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950만달러(약 97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1856년 영국 식민지 가이아나에서 액면가 1센트로 발행된 가로 2.5cm, 세로 3.2cm 크기의 이 우표의 경매 시작가는 450만달러였으나 불과 2분 만에 익명의 전화 경매 참여자에게 팔렸다고 소더비측 책임자인 데이비드 레든이 밝혔다. 이는 단일 우표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이다. 지금까지의 최고가 기록은 1996년 230만달러에 팔린 1855년 발행 스웨덴 우표가 보유하고 있다.

‘우표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이 우표는 1986년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 3차래나 경매가 기록을 갈아 치우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 캄보디아 북한 박물관 개관 늦어지는 이유는

### 美 방송 “北, 앙코르와트 매표소 위치 변경 요구에 양국 갈등”

북한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옆에 박물관을 짓기 시작한 지 3년째지만 앙코르와트 매표소 위치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1500만 달러를 들여 김정일 국

방위원장 생가 그림 등을 전시한 ‘그랜드 파노라마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지만 아직 개관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개관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북측 관계자들은 박물관 주차장과 매표소가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유명 관광지인 앙코르와트 사원 매표소의 위

치 문제로 보인다고 RFA가 전했다.

북한이 캄보디아 문화재청에 관광객들이 북한 박물관을 통해서 앙코르와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앙코르와트·앙코르톰 매표소 위치를 박물관 옆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문화재청은 앙코르와트·앙코르톰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북한 박물관을 거쳐 가도록 하는 조치가 북한의 외화벌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RFA는 밝혔다. /연합뉴스

#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재장터, 썰매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40~50%정도 대출가능
28평(26실) 9800만원	
56평(1실) 1억9600만원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